

6월 3일(금)

거룩한 교회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에베소서 3:14~16)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타내신 영광의 풍성함과 총만한 십자가의 은총을 진실로 사랑합니다. 오, 주여! 쇠락하고 무너져가는 교회 위에 자비를 베푸소서. 모세의 자리에 앉기만 즐거워하고 끌고다 언덕 십자가를 외면하는 교회를 멀리하지 마시고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진실한 믿음과 견고한 사랑으로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룩한 교제가 교회 안에 운행하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였으나 주님과 관계없는 교회 되지 않게 하소서. 맘몬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것으로 만족함을 찾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기쁨으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4일(토)

원수 사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요한복음 17:26)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전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과 정성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죽을 자들이 죽는 것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본심을 생각합니다. 죄인들에게 사망과 재앙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기억합니다. 인생들이 생명과 평안을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화목제물 어린 양 그리스도를 사망에게 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악인이었을 때, 연약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오, 주여! 마귀의 종이었고 주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사랑하신 신비한 사랑을 우리에게도 주옵소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안에 넣어 주옵소서. 공연히 나를 치고 욕하며 멸시하는 이들을 사랑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기도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까닭과 내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증거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5일(주일)

평신도주일 예배문

[하나님께서 모임]

전주	반주자
*입례송	26장(구세주를 아는 이들)..... 다함께
*예배로 부름과 기원 집례자
*경배찬송	9장(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다함께
*말씀교독	이사야 42장(교독문 70번)..... 다함께
*삼위영가	3장(성부 성자와 성령)..... 다함께
오늘의 기도 권사 대표
주님의 기도 다함께
기도응답송 찬양대

[말씀의 선포]

성경봉독	
(1) 구약의 말씀 : 사사기 6:11~16 집사 대표(여)
(2) 신약의 말씀 : 에베소서 6:10~12 집사 대표(남)
(3) 오늘의 말씀 : () 설교자
찬양 찬양대
설교 설교자

[감사와 응답]

합심기도 말은 이
1. 세계의 전쟁과 폭력, 살인과 야만의 갈등을 고치소서 (남선교회 회장)	
2. 하나님의 뜻에 합한 감리회의 영적 지도자를 세워주소서 (여성교회 회장)	
3.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들을 일으키소서 (청장년선교회 회장)	
신앙고백 다함께
찬송	289장(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다함께
*봉헌	50장(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함께
*봉헌기도 말은 이
*평화의 인사 다함께

[세상으로의 파송]

교회소식 집례자
*찬송	505장(은 세상 위하여)..... 다함께
*파송의 말씀 다함께
*축도 목 사
후주 반주자

(* 표시한 곳은 일어선다)

제 38회

평신도주일

오늘의 영혼 내일의 희망



기도문, 예배문

기도 주간 2016. 5. 30(월)~6.4(토)

평신도 주일 2016. 6.5(주일)

평신도주일은

1979년 3월 총회결의에 의하여 감리회본부에 평신도국을 두고 지방에는 평신도부를 두어 매년 5월 마지막 한 주간과 6월 첫째 주일을 온 교회가 지키게 되었습니다. 평신도가 예수 제자로서, 청지기로서 선교와 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개인과 교회 성장에 이바지하고 밖으로는 사회구원의 밑알이 되어 하나님나라를 이루어 가는 데 쓰임 받게 하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웨슬리 개인의 경건과 절제를 통한 성화와 사회구원을 강조함으로써 매년 5월 24일을 전후로 지키는 웨슬리 회심주간과 6월 첫 주일에 지키는 평신도주일을 연계시켜 회심의 체험을 통하여 사회구원을 위한 헌신 봉사의 계기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신도주일은 평신도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재인식하고 결단을 새롭게 하는 계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평신도를 새롭게 정립하는 평신도의 생일입니다.



주관 :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사회평신도국
주최 : 지방 사회평신도부

5월 30일(월)

영혼 구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창세기 18:32)

여호와와 의의 문으로 들어가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터에서 베풀어주신 평강의 풍성함을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우리 마음이 번성한 종려나무와 같고 성장한 백향목과 같습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권세로 돌보시고 지키시는 구원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하고 사망의 문으로 행하는 이들을 어찌 하시렵니까? 끝 모르는 지옥의 불구덩이, 참혹한 멸망에 사로잡힌 이들을 어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이 흑암과 음부의 권세, 불못에서 놓임 받아 지체하지 않고 구원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서 의의 길, 생명의 길에 있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거부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소돔과 고모라가 형벌 받은 것은 의인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 영을 부어 주셔서 마귀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거룩한 빛을 비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31일(화)

치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민수기 12:13)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완전하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는 우리의 참 소망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어린 아이가 독사 굴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는 주님의 나라를 진심으로 구합니다. 눈물이 없고 사망과 애통이 없으며 아픔과 슬픔이 다시 없는 평강의 예루살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에서 나그네로 살면서 탐욕의 깊은 유혹에 빠지는 우리를, 오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넘치도록 있으면서도 빼앗고 속이고 채우려하는 시기심의 죄악을 불태워 주옵소서. 육신이 썩고 부패하여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악취가 진동하는 죽음 앞에서 방황하는 바알의 후손들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대의사신 주님께 부르짖으니 병든 이들에게 거룩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고치고 낫게 하옵소서. 다리를 저는 이들이 걷게 하고 말 못하는 이들이 말하게 하소서. 암과 골수의 질환과 뇌혈관의 막힘과 오장육부의 무질서함으로 인해 절망하는 이들에게 구원의 산 소망을 허락하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부부들의 원통함을 외면하지 마시고 생명의 창조를 허락하셔서 여호와가 하나님임을 알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1일(수)

영적 승리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사사기 6:15)

하늘 구름과 바다의 샘들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내리심으로 땅의 소산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우로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오니 주님의 인자를 베풀어 주옵소서. 벼락이 큰 소리를 내며 번개가 빛을 발하면 우리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바람과 물결이 크게 뛰놀면 다리의 힘이 풀리고 어찌할 바 모르고 당황합니다. 미디안의 강한 군대가 병거와 마병으로 주의 백성들을 조롱하며 침략하면 피할 곳을 찾기에 급급합니다. 원수들은 주의 백성들을 정죄하며 송사합니다. 마귀들은 주의 자녀들을 멸시하며 비참하게 구덩이로 끌고 갑니다. 오, 주여! 우리는 극히 약하고 어리며 작고 작은 벌레와 같습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평화를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신령한 뜻을 따를 만한 지혜를 구합니다. 그리스도 보혈의 샘가에 견고히 서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게 하옵소서. 진리의 햇빛로 어둠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큰 용사로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월 2일(목)

사회 성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에스더 4:16)

생각과 행하시는 그 길이 우리 보다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합니다. 경영과 계획하심이 신묘막측(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신기하고 오묘)하시고 대대로 영화로우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열방과 민족과 군왕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 받으옵소서. 빛의 광명함으로 가장한 옛 원수 마귀는 하만의 계략을 앞세워 거룩한 백성을 수산 성에서 사로잡으려 합니다. 전쟁의 공포와 살인의 광기로 의인들을 압제하려 달려듭니다. 테러와 폭력, 무기와 악취, 노략과 속임수, 음란과 패륜으로 가득한 거짓 영의 완악함이 이 땅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음녀 바벨론은 포악한 짐승처럼 무자비한 칼을 휘두릅니다. 오, 주여! 새 힘을 일으키소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 말씀의 권세, 기도의 강력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전파하게 하옵소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옵소서. 불의하고 패역한 세대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공의를 마땅히 전파할 용기를 허락하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한 성령으로 한마음 되어 몸 된 그리스도 교회의 깃발을 높이 들어 구원의 등대를 비추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